

세계적 양산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인터넷회원 주중그린피 할인

- 5일전 부킹 1만원 할인
- 3일전 부킹 2만원 할인
- 1일전 부킹 3만원 할인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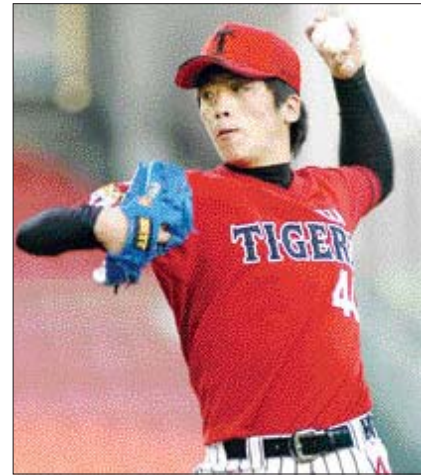
임준혁



양현종



이범석



문현정

모처럼 상승세에 올라탄 '호랑이 군단'이 또 부상의 악령을 만났다. 이번에는 2선발 용병투수 스코비다. 스코비가 오른쪽 어깨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 정확한 이유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더 답답하다. 스코비는 지난 6일 광주 한국 병원에서 실시한 MRI검사서 이상 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흔히 이런 경우 이유없이 통증이 오래간다. 지난 7일 부상 점검차원에서 캐치볼을 했는데 어깨 통증이 와 이마저도 중단했다.

사실 스코비는 지난달 31일 SK전에서 승리투수가 된 뒤부터 갑자기 어깨쪽 통증이 호소해 왔다. KIA는 결국 지난 5일로 예정했던 선발등판 날짜를 8일로 미뤘고, 또 11일로 연기했다.

지난 5월 팀에 합류한 스코비는 5승6패, 방어율 3.58을 기록중인데, 15경기에서 9번의 퀄리티스타트를 기록할 정도로 제 몫



KIA 마운드 확! 젊어진다

스코비 부상에 젊은 투수 대거 기용

을 다해냈다. 그래서 스코비의 부상은 KIA에겐 더욱 치명적이다. 서정환 KIA감독도 "현 상태로 바선 다음 등판일도 장담할 수 없다. 부상이 길어지면 큰 일"이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올 시즌 KIA는 주전 선수 중 몸이 안 아픈 선수가 거의 없다. 시즌 초 서정환 감독

튼이 부상 등의 이유로 중도 하차했고, 이대진, 윤석민, 전병두, 최희섭, 홍세완, 장성호, 이영규, 김진우 등 부상선수의 이름을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다. KIA는 다행히 서머리그 들어 타선이 다시 살아나면서 후반기 돌풍의 핵으로 떠올랐다.

8일 현재 KIA는 서머리그에서 9승7패로 1위 삼성에 2.5게임 뒤져있고, 우승에도 도전해 볼 만한 상승세다. 다만 무너진 마운드가 문제인데, 스코비의 부상으로 더욱 힘들어 지게 됐다. 하지만 아직도 희망은 있다. 바로 젊은 피들의 수혈이다. 현재 KIA 마운드는 시즌초 1~4선발로 점쳐졌던 투수 중 윤석민만 남아있다. 후반기에 잠시 복귀해 호투수를 펼쳤던 이대진은 컨디션 하락으로 다시 2군에 내려갔고, 김진우는 임의탈퇴로 팀을 완전히 떠난 상태다.

따라서 KIA는 젊은 투수들을 대거 기용한다는 복안이다. 서 감독이 믿고 있는 젊은 마운드는 우완 임준혁과 이범석, 좌완 양현종, 문현정 등이다. 이들은 당장 남은 시즌의 활약을 중요하지만 내년 시즌을 위해서라도 키워 내야 할 재목들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PGA 챔피언십 이모저모

43도... 더위와 전쟁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의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인 제89회 PGA 챔피언십이 더위와 전쟁을 예고했다.

기상예보는 9일(한국시간) 밤 오클라호마주 털사 서던힐스골프장에서 열릴 대회 기간 비는 내리지 않고 37°C가 넘는 불볕더위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1, 2라운드 때는 수온주가 43°C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기상예보가 나오면서 더위를 극복하는 것이 우승트로피의 향방을 가늠할 변수로 떠올랐다.

선수 대다수가 더위를 걱정하고 있는 가운데 브렛 퀴글리(미국)는 "이런 더위가 너무 좋다. 연습 라운드에서 9개홀을 돌았는데 따로 흘리지 않았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퀴글리가 이처럼 자신감이 넘치는 것은 1시간30분 동안 35°C나 되는 실내에서 요가 트레이닝을 해온 덕분.

대회 네번째 우승을 노리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도 "장갑만 자주 바꿔 끼면 된다"며 더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9일(한국시간) 밤 미국 오클라호마주 털사의 서던힐스 골프장에서 열리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인 제89회 PGA 챔피언십에서 앤서니 김(22·나이지리아)의 우승을 예상한 전문가가 나와 화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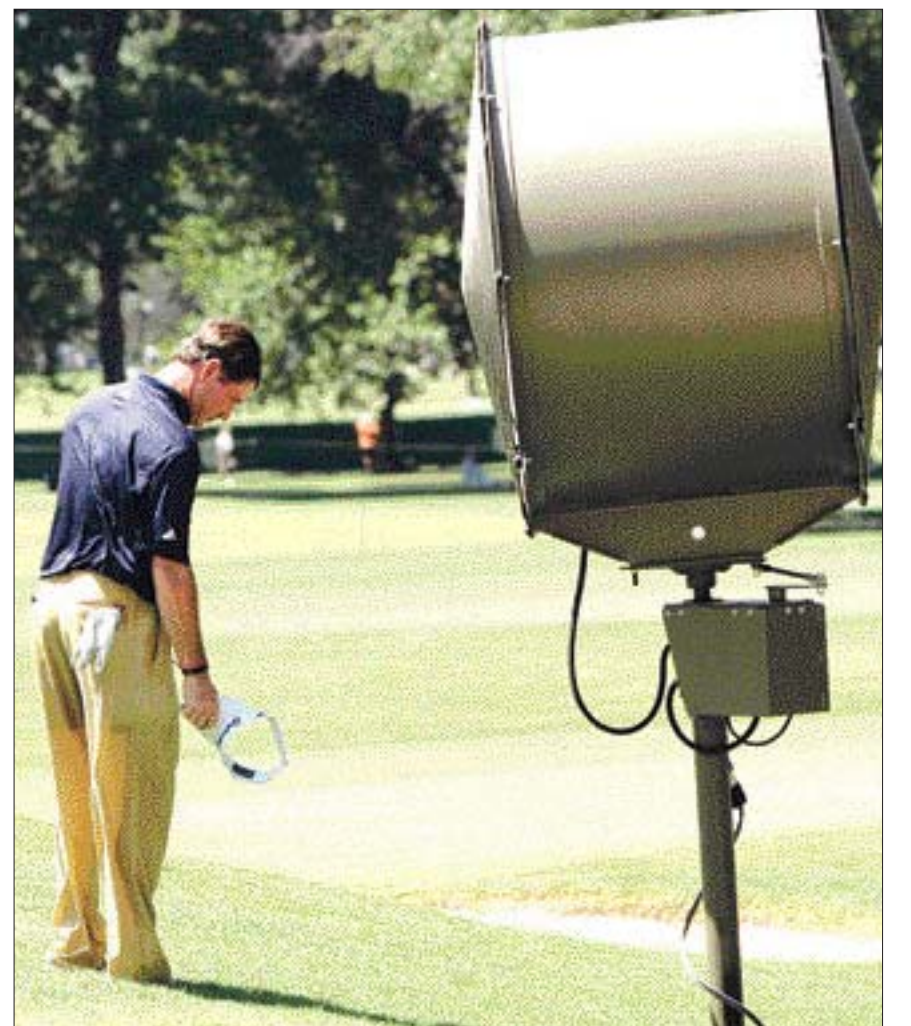
미국의 골프 전문 인터넷 사이트인 '골프닷컴'은 9일 골프매거진,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 골프닷컴의 전문가 7명을 대상으로 이번 대회 우승을 누가 할 지에 대한 설문 조사를 했는데 그 중 한 명이 앤서니 김을 우승 후보로 꼽은 것이다.

골프매거진의 엘런 배스터블 기자는 "앤서니 김이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할 것이라는 마땅한 근거는 없다"고 먼저 한 발을 빼면서도 "그러나 잭 존슨이 마스터스에서 우승할 때 그랬고 양현 카브레라의 US오픈 1위도 예상치 못했던 일 아니냐"고 주장했다.

○레티프 구센(남아공)과 스투어트 싱크(미국)에게는 서던힐스골프장의 18번홀(파4)이 악몽의 홀로 기억되고 있다.

2001년 US오픈골프대회가 열렸던 서던힐스골프장에서 구센은 대회 마지막 날 18번 홀 티그라운드에서 샷을 때 5언더파로 마크 브룩스(미국)와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었다. 두번째 샷을 할 3.6m에 떨어진 구센은 브룩스가 보기를 한 덕에 2퍼트만 하면 곧바로 우승트로피를 거머쥌 수 있었지만 버디 퍼트를 놓친 데 이어 60cm짜리 챔피언 퍼트마저 옆으로 빠지면서 결국 다음날 18홀 연장전을 치르는 고전 끝에 우승할 수 없었다.

싱크는 18번홀에서 이어붙게 더블보기를 범하는 바람에 연장전에 나갈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구센과 싱크는 "당시 18번홀 그린의 잔디를 이상하게 깎아 놓는 바람에 그린 스피드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회상했다.



"편다 썬" 미국의 토드 해일리언이 9일 PGA 챔피언십 연습라운드 도중 대형 선풍기 앞에서 머더위를 식히고 있다. /연합뉴스

시즌이 끝날 때까지 본즈신화 계속 된다

워싱턴전 또 홈런... 757호



메이저리그 최다 홈런왕에 오른 배리 본즈(43·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하루만에 기록을 경신했다.

본즈는 9일(한국시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AT&T파크에서 열린 워싱턴 내셔널스와 홈경기에서 좌익수 겸 4번타자로 선발 출장, 1회말 2점홈런을 쏘아올려 개인통산 757호를 기록했다.

본즈는 1회 2사 1루에서 상대 선발투수 팀 레딩을 상대로 3구째를 잡아당겨 우측 펜스를 넘어가는 홈런을 만들어냈다. 올시즌 23번째 홈런.

4회에 볼넷을 골랐고 6회에는 유격수 땅볼에 그쳐 이날 2타수 1안타로 마감했다. 본즈는 7회초 수비 때 더블 스위처로 인해 투수 잭 테쉬너에게 4번 자리를 내주고 벤치로 들어왔다. 샌프란시스코는 5-0으로 이겼다. 한편 아시아 거포로 한 시대를 풍미한 오

사다하루(王貞治) 일본프로야구 소프트뱅크 호크스 감독은 배리 본즈의 미국프로야구 통산 최다 홈런 신기록 작성을 축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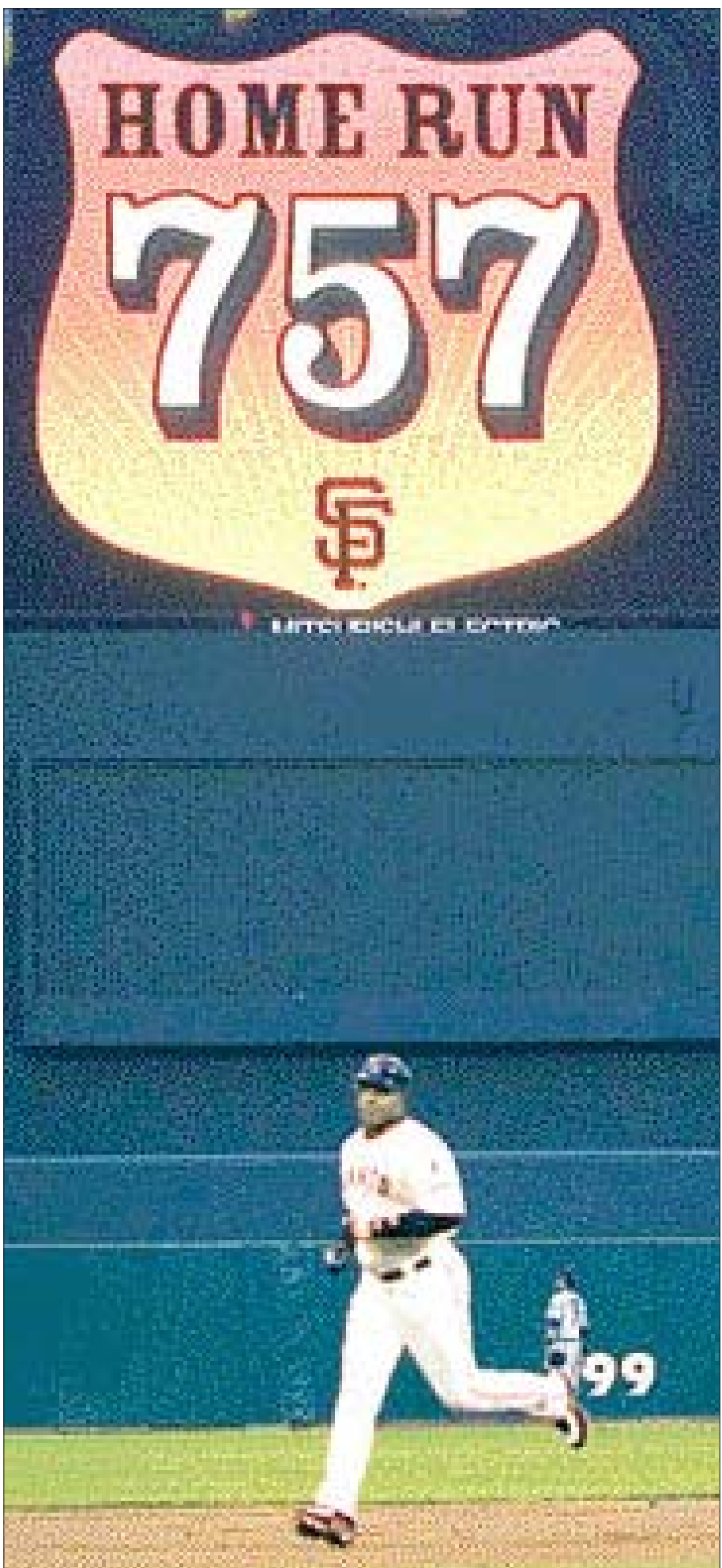
'스포츠투치', '스포츠투폰' 등 일본 언론은 9일 인터넷판에서 오사다하루 감독이 전날 본즈의 대기록 수립을 축하하면서 "800호 홈런도 돌파하기를 기대한다"며 덕담했다고 전했다.

외다리 타법으로 유명한 오사다하루 감독은 요미우리 자이언츠에서 22년을 뛰며 개인 통산 868개의 홈런을 터뜨려 비공인 세계 기록을 보유 중이다.

이 밖에 배리 본즈의 미국프로야구 통산 최다 홈런 신기록 수립 장면이 TV에서 또 이번 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스포츠투전 케이블 채널 ESPN은 9일 전날 본즈 경기 시청률이 1.1%에 그쳤고 미국 내 전체 가구수로 따져도 시청 가구는 99만5천체에 불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5일 본즈가 755호 아치를 그렸을 때와 똑같은 수치로 3%를 차지했던 6일 톰 클레이버(뉴욕 메츠)의 300승 달성 경기보다도 낮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9일 샌프란시스코 AT&T파크에서 열린 워싱턴 내셔널스와 홈경기에서 1회말 개인통산 757호 홈런을 기록한 배리 본즈(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그라운드를 돌고 있다. /연합뉴스

애리조나 복귀 김병현 난조 2.10일 7안타 허용 5실점

4년만에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로 돌아온 '한국산 핵잠수함' 김병현(28)이 친정 복귀전에서 제구력 난조로 3이닝도 채 넘기지 못하고 강판됐다.

김병현은 9일 애리조나주 피닉스 체이스 필드에서 벌어진 미국프로야구 피츠버그 파이어츠와 홈경기에서 선발 등판, 2.1이닝 동안 홈런 1방 포함 안타 7개를 맞고 4-4이던 3회 1사 만루에서 에드거 곤살레스로 교체됐다. 곤살레스가 내야 땅볼로 한 점을 더 주면서 김병현의 실점은 5점(4자책)으로 늘었다.

애리조나가 10-6으로 역전승하면서 김병현은 패전에서 벗어났다. 시즌 성적 6승5패를 유지했고 평균자책점은 4.63에서 4.93으로 나빠졌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진흥고, 군산상에 콜드 승 봉황대기 고교야구 1회전

진흥고가 제3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 대회에서 2회전에 진출했다.

진흥고는 9일 서울시 중구 흥인문로 동대문야구장에서 열린 군산상고와 1회전에서 장단 11안타를 집중시켜 7회 9-0 콜드게임 승을 거뒀다. 진흥고는 3회 나성범의 2타점 적시 3루타와 강하승의 2루타로 3점을 먼저 뽑았고, 5회와 6회 3점씩 더 보태 승부를 일찌감치 마무리지었다.

진흥고 선발투수 임요한은 6이닝 동안 안타 4개만 내주고 무실점으로 막아 승리를 첫발쳤다.

미국프로야구 미네소타 트윈스와 입단 계약한 군산상고 3루수 최형욱은 이날 3타수 1안타를 기록했고 3번 중견수 최현욱은 2타수 무안타에 그쳤다. /박진표기자 lucky@

12세 소녀끼리 역대 첫 매치플레이

펠린·툰슨, 미아마추어골프선수권서 맞대결

106년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여자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에서 역대 처음으로 12세 소녀끼리 펼치는 매치플레이가 성사됐다.

회계의 주인공은 대만 태생 부모를 둔 펠린과 두 달 전 가장 어린 나이에 메이저대회인 US여자오픈 출전권을 따내 이목을 끌었던 알렉시스 톰슨(미국).

펠린은 9일(한국시간) 인디애나주 카림의 크룩트스틱 골프장(파72·6천595야드)에서 열린 매치플레이 64강전에서 애슬러 타이틀(미국)를 1홀차로 누르고 2라운드에 진출, 에반 켈렌(미국)을 꺾은 톰슨과 맞붙는다.

펠린은 지난 6월 만12세가 됐고 톰슨보다 6년 늦게 태어났다. 태권도 유단자인 펠린은 특히 골프채를 잡은 지 3년6개월만에 미국 최고 권위의 아마추어대회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여줘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처음 만났다는 진과 톰슨은 "정말 재미있는 경기가 될 것"이라며 2라운드에 기대를 걸었다.

한편 작년 이 대회에서 우승했던 재미교포 김벌리 김(17)과 국가대표 송민영(18)도 64강을 통과했고 '장타소녀' 장하나(15)와 국가대표 출신 허미정(18)은 2라운드에서 맞대결을 벌인다. /최희재기자 lion@kwangju.co.kr